

U-러닝 미래형 LCD 전자칠판

전자칠판 + 대문발트 노트북 + AP

www.tyunc.com 031_484_3858

교육연합신문

EY MALL

www.eymall.com

2016년 10월 5일(수) 제 265 호

EduYonhap.com

구독 배달안내: 02-541-2000



연재-신약초에 빠지다

산에서 자라는 식물에는 건강이 함께 하고 있다. 전라남도 삼악농업협동조합 김형중 조합장이 오랜 기간 연구하면서 준비한 신약초의 이야기와 그 효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한다.

9면



김해신어중-김해중, 경로당 벽 보수

경남 김해 신어중학교(교장 서종희)는 부원중앙경로당에서 지난 24일 토요일 재능기부 동아리로 벽화작업을 실시했다. 지역의 소외된 계층을 위해 재능을 기부하는 동아리이며, 신어중학교와 김해중학교 학생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13면



영광중앙초, 모두가 행복한 학교 만들기 최선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에 위치한 영광중앙초등학교(교장 오춘선)는 1964년 개교 이래 48회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현재 유치원 1학급을 포함하여 28학급 600여명 규모의 학교이다.

유해 우레탄트랙, 전면 교체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서 '우레탄트랙 위생성 관리 개선대책' 확정

정부는 9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99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우레탄트랙 위생성 관리 개선대책'을 논의 확정했다.

이날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얼마 전 학교운동장 우레탄트랙에서 기준치 이상의 납이 검출됨에 따라 국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정부는 문제 사실을 전면 교체하고 안전기준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현행 우레탄트랙 KS기준의 유해물질 관리대상(중금속 4종)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확대(국가기술표준원, '16.12)하여 안전성을 강화한다.

또한, 학교 운동장뿐만 아니라 전국에 설치된 우레탄트랙을 모두 조사하여 새로운 KS기준을 초과하는 곳은 전면 교체해 나갈 계획이다.

현행 KS기준을 초과한 학교등 마사도로 교체를 희망하는 학교는 우선 교체('16.8)를 추진하고, 나머지 우레탄트랙은 새로운 KS기준으로 전수조사한후 교체를 추진(교육부, '17~)한다.

공공체육시설 및 지자체 시설에 대

해 새로운 KS기준에 따라 실체조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발견되는 시설은 모두 교체('17~)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 놀이시설은 기존 법령에 규정된 설치검사, 2년단위 정기검사 과정을 통해 문제시설을 신속히 교체(안전처·교육부·지자체, '17)해 나간다.

현장 시료채취 검사를 통해 기준 충족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시설 준공검사를 내실화하고, 정기 안전점검사를 통해 사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2015학년도 학업중단 학생, 전년 대비 4,836명 감소

전체 학업중단 학생 47,070명... 재직학생 대비 0.77%

교육부는 2015학년도 학업중단 현황조사 결과, 전체 초·중·고 학업중단 학생은 총 47,070명으로 전년 대비 4,836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2015학년도 전체 학업중단 학생 47,070명은 재직학생 대비 0.77%이며, '14학년도 학업중단 학생 76,589명(재직학생 대비 1.06%) 이후 6년 연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급별 학업중단 학생 수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14,555명(-

331명, 1.2.2%), 중학교는 9,961명(-1,741명, 14.9%), 고등학교는 22,554명(-2,764명, 11.0.9%)으로 모든 학교급에서 전년 대비 학업중단 학생이 감소했다.

특히, 매년 학업중단 학생이 다수 발생하는 학교급인 중·고등학교에서 각각 10% 이상 감소한 것은 학교현장에서 총동적인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의 성과로 해석된다.

이를 '15학년도 재직학생 대비 학업중단율로 환산하여 살펴보면 전체

학업중단율은 0.77%로 전년 대비 0.06%p 감소했다.

한편, 부직을 등의 사유(질병, 해외출국 제외)로 인한 학업중단 학생은 24,959명(전체 학업중단 학생의 53%)으로 전년 대비 3,543명(1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학교급 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2,733명(-44명, 1.6%), 중학교는 4,376명(-1,100명, 20.1%), 고등학교는 17,850명(-2,399명, 11.8%)로 나타났다.

이를 '15학년도 재직학생 대비 부직을 사유의 학업중단율로 환산하여 살펴보면, 부직을 사유의 학업중단

율은 0.41%로 전년 대비 0.04%p 감소했다.

각 학교 급별로 학업중단의 세부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정규교육 외 진로선택(대안교육 등)을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1,52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교 부직을(학업, 대인관계 등)을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135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와 달리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학교 부직을(학업, 대인관계 등)으로 각각 2,000명, 7,963명이 학업을 중단한 학교급으로 올라감수록 학교부직을 사유로 학업중단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제6회 광주광역시 마라톤 대회 개최 10월 1일 오전 8시 30분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공광장주변로에서 열린 제6회 광주광역시 마라톤 대회에 참가자들이 출발선을 통과하고 있다. 대회 참가자들은 출발선을 통과하며 "오늘은 5Km, 10Km, 하프, 하프마라톤, 마라톤 등 약 3,000여명의 참가자 모두가 건강하게 완주하길 바란다"고 말하고 "가을바람 삼매천 코스도 시원하게 달려서 가을바람을 느껴보고 싶다"고 말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가을바람 삼매천 코스도 시원하게 달려서 가을바람을 느껴보고 싶다"고 말했다. 제6회 광주광역시 마라톤 대회는, 6-15공공선언실천남측위원회광주본부와 민주총총공공본부, 광주공광장을 매개주최기관인 광주광역시마라톤협회와 함께 개최하고 광주광역시마라톤대회조직위원회가 주관했다. 순천일보 기자 sdw@

내년부터 아동학대 발견 시스템 본격 가동

어린이집 평가인증 의무화...아동학대 발생시 최하위 등급 조정

올해 상반기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적극적인 신고로 숨겨진 아동학대가 발견된 경우 다 대응해 나가기 때문에 분석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아동학대 방치대책의 실효성을 추진을 위한 '아동학대 대책 추진 평가 및 보완 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학대 신고자 보호 강화(특별법개정), 학교·어린이집 등 무단결석 대응 대응법 마련, 장기결석 등 위기아동 1만 4000명 점검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방치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만 2686건으로 전년 동기 8256건보다 53.4% 늘었다.

피해아동 응급조치도 582건에서 897건으로 54.1% 증가했으며 피해 아동·가정에 대한 사후 상담 및 심리치료 제공도 22만건에서 31만건으로 약 40% 증가했다.

특히, 의료기관·포직원회 같은 신고 의무자의 신고도 2380건(28.8%)에서 3700건(29.2%)으로 55.4% 늘었다. 그러나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생한 학대 사건에서는 학대

방지 체계의 약한 고리도 발견됐다. 양육시설에서 퇴소 후 지자체 관리가 닿지 않고 외부의 접촉도 거의 없는 사각지대에서 학대를 받다가 사망한 아동이 발견되기도 했다.

어린이집이나 의료기관 등에서 아동의 학대 징후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신고가 늦어진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 지자체에서 나타난 약한 고리를 보완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사각지대 아동 발견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대 위험 가구 예측·발견 시스템인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현재 진로정보, 어린이집 출결 현황, 학부모 부재정보, 알람을 중독 정보 등을 담기 위한 자료를 검증 중이다.

또 정부 합동 점검 결과 학대가 많이 발견된 학업 중단 위기 학생에 대해서는 누락없이 발견하기 위해 학적 정보 관리·연계할 수 있게 관련 시스템도 개선한다.

기존 대책에 포함된 신고의무자 및 이웃의 신고 활성화 계획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한다. 각 신고 의무자 직권별 신고의무 안내와 직권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하고 통반장이

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이웃에도 학대 발견·신고요령을 안내할 계획이다.

안타까운 학대 사례가 발생했던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퇴소 심사·판단을 강화하고 퇴소 후 6개월 이내에는 아동의 가정을 관계 공무원이 직접 방문 점검하도록 한다.

또 드림스타트나 읍면동 복지회관 등 지자체-민간기관 간 업무프로젝트를 마련하는 등 지자체 아동보호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근본적인 학대 예방을 위해 학대 위험 수준에 따라 대상별로 마련한 부모교육 제도화 방안을 내실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부모교육 활용 수준, 만족도 등을 점검해 교육 제도를 높이고 특히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전문상담사가 찾아가는 교육을 확대한다. 매년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어린이집 CCTV 관리운영 실태와 해당 영상을 모니터링해 학대 징후를 확인하고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무자격자의 보육행위를 단속하는 등 어린이집 관리를 강화한다.

현재 신청제인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전면 신청제인 대상으로 의무화하고 아동학대 발생시에는 최하위 등급으로 조정한다.

한/국/근/대/문/학/관/특/별/전/시

인천의 고교 교지(校誌) 특별전

학창시절의 추억

2016. 9. 13(화) ~ 10. 23(일) / 한국근대문학관 기획전시실

주최 | 주관 | 후원

한국근대문학관